

석달새 두차례 성장률 낮춘 한은, IMF보다 더 비관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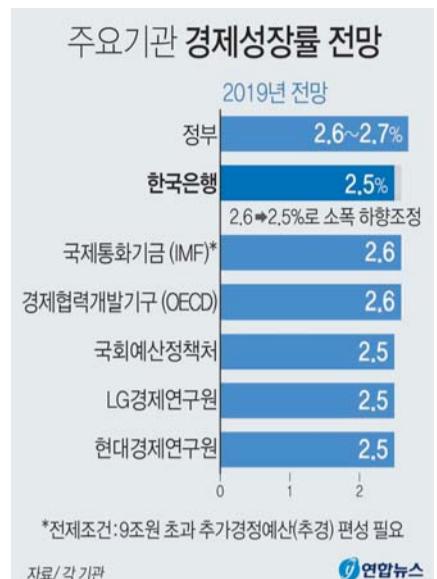
(2.7%→2.6%→2.5%)

“예상보다 수출·투자 흐름 부진”
소비자물가 전망도 0.3%p 내려
정부 추경 포함땐 회복 도움 전망

한국은행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전망치를 2.5%로 기준보다 0.1포인트 낮췄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도 1.1%로 0.3포인트 내려졌다. 다만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포함될 경우 성장세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일각에서는 저성장, 저물가 기조로 디플레이션(물가하락 속 경기침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은은 디플레이션 가능성을 일축하며 ‘R의 공포’, 일명 리세션(경기침체)에 대해 “과도하다”고 진단했다.

한은은 18일 ‘2019년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지난 1월 전망치인 2.6%에서 2.5%로 0.1포인트 하향조정했다. 앞서 한은은 지난 1월 올해 경제성장을 전망치를 2.7%에서 2.6%로 내렸다. 3개월 사이에 두차례에 걸쳐 경제성장률을 0.2%



포인트 낮춘 셈이다.

이번 성장률 전망치 2.5%는 정부나 기관의 전망치보다 낮다. 정부는 올해 성장률 목표를 2.6~2.7%로 제시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달 2.6%로 전망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9일 2.6% 전망치를 유지했다.

한은이 경제성장을 전망치를 하향조정한 이유는 올해 1분기 지표가 예상한

것보다 나빴기 때문이다. 이주열 총재는 “올해 1분기 중 수출과 투자 흐름이 당초 예상보다 부진한 점을 반영했다”고 말했고, 정규일 부총재도 “외외적 여건에 따라 반도체 수출이 부진했고, 설비투자 등이 줄어 작년 하반기 이후 성장세가 둔화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은은 건설투자 조정이 지속되겠지만 소비가 증가 흐름을 이어가고 수출과 설비투자가 하반기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추경을 포함한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가 성장세 회복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분석이다.

이번 전망치에는 추경 편성 영향이 반영되지 않았다. 당정은 이날 5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경안을 추진하기로 협의했다. 추경 규모는 6조~7조원 규모로 추정된다.

이 총재는 “추경을 포함해 하반기 정부 지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추경의 경우 아직 규모, 구성내역, 지출시기 등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전망치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 부총재는 “성장률 전망에 반영

하지 않았지만 추경이 4~5월 경 통과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중국의 경기 부양, 미국·유럽·일본의 통화정책 완화 기조, 미·중 무역협상 가능성, 반도체 경기 회복 등의 영향으로 하반기부터는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내다봤다.

설비투자는 상반기 -5.3%에서 하반기 6.4%로 반전(연간 0.4%)할 것으로 예상했다. 상품수출 증가율도 상반기 1.4%에서 하반기 3.9%(연간 2.7%)로 높아질 것으로 봤다. 건설투자는 -3.2%(상반기 -6.4%, 하반기 -0.3%)로 감소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상품수입 증가율은 1.6%(상반기 -1.8%, 하반기 5.0%)로 내다봤다.

또 최근 취업자 증가 폭이 두 달 연속 2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이같은 추세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은 올해 14만명 증가에서 내년에는 17만명 증가로 고용이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실업률도 올해 3.8%(상반기 4.2%→하반기 3.4%)에서 내년 3.7%로 하락할 것으로 분석했다.

한은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1.4%에서 1.1%로 낮췄다. 지난해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1.7%로 전망했다가 올해 1월 1.4%로 내린 데 이어 추가로 하향조정을 한 것이다.

한은은 하반기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저성장, 저물가 기조가 장기간 이어질 경우 디플레이션 우려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한은은 디플레이션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봤다.

이 총재는 “최근 물가상승률이 낮아진 것은 석유류와 농축수산물 가격 약세 등 일시적인 공급 요인과 정부의 복지정책 강화 때문”이라며 “경기상황과 관련도가 높은 물가지표는 1% 대 중후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반기 이후에는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0%대에서 벗어날 것”이라며 “디플레이션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강조했다.

또 ‘R의 공포’, 일명 리세션(경기침체)에 대해서는 “과도하다”며 “앞으로의 성장 흐름은 잠재성장을 수준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수준의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희주 기자 h89@metroseoul.co.kr

미래에셋대우, 홍콩 랜드마크에 2800억 투자

‘골든파이낸셜글로벌센터’ 투자
친환경 인증… 발전 가능성 높아

미래에셋대우는 홍콩 이스트 카우룽에 위치한 오피스 빌딩 ‘골든파이낸셜글로벌센터’의 메자닌(중순위) 대출에 2억4300만달러(약 2800억원)를 투자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미래에셋대우가 투자한 골든파이낸셜글로벌센터는 홍콩거래소 상장회사 ‘골든파이낸셜홀딩스’와 최대 주주인 홍콩 부호 판수통(Pan Sutong)이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는 오피스 빌딩이다. 미국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 ‘리드(LEED)’ 플래티넘 등급을 부여 받은 등 홍콩 내에서 손꼽히는 친환경 건물로 알려졌다.

‘리드(LEED)’는 영국의 ‘브리암(BREEAM)’, 싱가포르의 ‘BCA그린마크’와 함께 세계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 3대 인증으로 인정 받고 있으며 이



홍콩 이스트 카우룽에 위치한 오피스 빌딩 ‘골든파이낸셜글로벌센터’ 전경. /미래에셋대우

중에서도 플래티넘 등급은 리드 인증의 최고 등급으로서 한국과 홍콩의 연면적 1만평 이상 오피스 빌딩 중 플래티넘 등급을 보유한 빌딩은 각각 6건에

불과하다.

특히 ‘골든파이낸셜글로벌센터’가 위치한 홍콩의 이스트 카우룽은 기존 중심업무지구인 센트럴 지역의 오피스 빌딩 포화 현상으로 홍콩 정부가 약 34조원을 투입해 총 690만평 규모의 새로운 중심업무지구(Central Business District·CBD)로 개발하고 있는 지역이다.

기존 CBD 빌딩의 노후화와 임대료의 과도한 상승으로 최근 다수의 글로벌 기업이 센트럴을 떠나 이스트 카우룽의 신축 빌딩에 입주하는 등 향후 오피스 시장의 발전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메자닌 대출은 짧은 만기 대비 높은 수익성으로 현지에서도 투자 매력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GIC(싱가포르투자청), 도이치뱅크 등 세계 유수의 투자자와 함께 국내에서는 미래에셋대우가 유일하게 투자자로 참여했다. /김유진 기자 ujin6326@

보수 오른 직장인 876만명, 건보료 14.8만원 더 낸다

상위 10% 보험료가 전체 96%

지난해 보수가 오른 직장인 876만명은 건강보험료로 평균 14만8000원을 더 내야 한다. 보수가 많이 오른 상위 10% 직장인의 보험료가 전체 96%를 차지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보수 변동에 따른 보험료 정산금액을 확정해 사업장에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전년 보수를 기준으로 부과한 뒤, 이듬해 4월에 지난해의 보수변동을 확정해 정산

하게 된다.

성과급이나 호봉승급 등으로 보수가 오른 직장인은 덜 낸 보험료를 추가로 내고, 보수가 줄어든 직장인은 더 낸 보험료를 환급받는 식이다.

2018년도 정산 대상자인 1449만명의 총 정산금액은 2조1178억원으로 전년보다 13.8% 증가했다. 공단이 추가로 징수하는 보험료는 총 2조5955억원, 환급하는 보험료는 총 4777억원이다. 1인당 평균 정산보험료는 14만6000원이다.

보수가 많이 오른 상위 10% 사업장

입자와 사용자(사업장) 각각 1인당 평균 14만8000원을 내야 한다. 최고 추가 납부 금액은 3243만3000원이다. 보수가 줄어든 297만명(20.5%)은 가입자와 사용자 각각 1인당 평균 8만원을 돌려 받는다. 최고 환급 금액은 2729만4000원이다. 보수를 정확히 신고한 276만명(19.0%)은 정산보험료가 없다.

보수가 많이 오른 상위 10% 사업장(15만9237곳)의 정산보험료가 전체의 96.4%(2조411억원)를 차지했고, 나머지 90% 사업장에서 3.6%(767억원)를 부담하게 됐다. /이세경 기자 seilee@

상생 위해 ‘협력기업 임금 인상’ 팔 걷어

(주)두산, 3년간 협력 프로그램 운영

(주)두산이 협력기업들의 임금 인상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향후 3년간 협력 중소기업과 종업원들에게 총 400억원 규모의 상생협력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두산과 ‘혁신 주도형 임금격차 해소 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산은 협력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기술경쟁력 강화와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향후 총 400억원 규모의 혁신주도형 임금격차 해소 상생협력 모델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울러 ▲제값 쳐주기 ▲제때 주기 ▲상생결제로 주기를 중심으로 한 ‘대금제대로 주기 3원칙’을 철저히 준수키로 했다. 협력 중소기업 역시 연구개발(R&D), 생산성 향상 등 혁신 노력을 강화해 두산의 제품·서비스 품질 개선, 가격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임직원 근로조건 개선과 신규 고용 확대를 위해서도 힘쓰기로 했다.

동반위는 두산과 협력 중소기업의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해소 및 동반



지난 17일 열린 두산 공정거래 및 상생협약식에서 (왼쪽부터) 두산 동현수 대표이사, 동반성장위원회 권기홍 위원장, 협력 중소기업 대표 동평태크 류만열 대표이사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동반성장위원회

성장 활동이 실천될 수 있도록 기술 및 구매 상담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 협력하고, 매년 우수사례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권기홍 동반위 위원장은 “두산은 지난 해 자발적으로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참여의사를 밝혔고 이번 협약식을 통해 다시 한번 동반성장에 대한 적극적인 활동 의지를 보였다”면서 “오늘의 혁신 주도형 임금격차 해소 협약을 통해 협력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가 대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 상생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낼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o@

1분기 ELS 발행액 19.8조… 18.1% 감소

코스피200 발행액 62% 줄어들어

한국예탁결제원은 올해 1분기 주가 연계증권(ELS) 발행금액이 직전 분기보다 18.1% 감소한 19조8000억원을 기록했다고 18일 밝혔다. 발행 형태별로는 공모형이 16조4000억원으로 전체의 82.7%를 차지했다.

기초자산 유형별로는 국내지수 ELS

증 코스피200지수 발행금액은 4조6000억원으로, 전분기보다 62.0% 감소했다. 반면, 해외지수 ELS 중 유로스톡스(EURO STOXX)50지수는 14조8000억원 발행돼 직전분기보다 51.5% 증가했고, 홍콩항셍중국기업(HSCEI)지수는 12조4000억원 발행돼 73.0% 늘었다. 1분기 ELS 상환액은 18조2000억원으로 직전분기보다 5.4% 감소했다. /손엄지 기자